

교육실습 소감문

한문교육과

처음 교육실습을 하러 고덕중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부장 선생님들께서 학교와 여러 가지 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그런데 그 주에 하필 2박 3일로 견학을 가는 바람에 학교에 남아서 학교 측에서 내준 연구 과제를 하거나 잔여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생각했던 실습과는 다른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2주째에는 본격적으로 교문지도와 학급 담당을 맡으면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내가 맡은 반은 1학년 5반이었는데, 담당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였다. 그리고 반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했던 학생 상담 역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여 한 번에 4명에서 5명 씩 진행하였다. 학교에 Wee class교실이 있었지만 전문적인 상담 선생님께서 이용하시는 공간이였고, 따로 공간을 내기 어려워 담당 학급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오히려 나보다 학생들이 바빠서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간단한 인적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대화가 진행될수록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 거리가 생기면 학생들을 대하기도 편해지는 면이 있었다.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몰랐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계기도 되었다. 한 학생은 미술 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 상 다니기 어려운 친구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 교실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기 바쁘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내가 학교 다닐 때와 비슷해 보였다.

가장 좋았던 것은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는 것이었다. 반면 교과 담당 선생님과 학습 지도안을 만들고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한문과 수업 시수가 적어서 세 시간 정도 수업을 했지만 같은 과목 담당 교생 선생님이 한 분 더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대표 연구 수업을 맡았기 때문에 같은 한문교과였던 내가 많이 도움을 주어야 했다.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했기에 주말에도 남아서 서로 연습을 하였는데, 주말까지 남아 문을 열어 주시는 경비원 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한문 교과 교실이 올해부터 만들어 졌다고 하여 그 교실에서 연습하였는데, 같은 환경, 같은 교실에서 대표 수업을 진행하여서 그런지 다행히 연구 수업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졌고, 그 연구 수업을 바탕으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면서 수업을 준비 하였다.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는데, 다행히도 학생들이 부족한 수업임에도 반응이 좋아서 고마울 따름이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 학생들의 질문과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을 바라는 중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였다. 적은 수업이었지만 한 차수 수업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순간이었다. 수업은 상황마다 교실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간단한 내용인데도 많은 것을 알아야 했고, 그만큼 선생님들의 고충이 느껴졌다.

마지막 주에는 한 달 동안의 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간단한 평가가 이루어 졌다. 담임 담당 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 그리고 생활 지도 선생님들께서 참석한 자리였는데, 간단한 소감을 말하고 고쳐야 할 점이나 조언 등을 해주셨다. 나의 생활을 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도 있듯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종례시간에 담당 학급 학생들과 만나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학생들이 롤링페이퍼를 적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주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이해해 주었다는 것과 짧은 시간이었기에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같이 실습을 하였던 나를 포함한 5명의 교생 선생님들도 기억에 남는다. 각각 체육, 음악, 영어, 한문 담당이었다. 나중에 헤어지기 아쉬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지 13년이 지났다. 그리고 다시 모교에 돌아와서 보니 학생이었을 때와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 중학교 시절 체육선생님 한 분이 아직 고덕중학교에 남아 계셨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 2학년 때와 3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들의 안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모두 주변 학교에 계셨다. 과연 중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교육실습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교직 생활이 나와 맞는지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하였다. 일찍 끝나고, 방학도 있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인 반면 그만큼 시간을 주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자신의 일 외에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 교사들의 방학이 2달인 이유가 느껴지기도 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개개인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하고, 또한 학생 인권이 강화된 요즘은 학생들의 여러 사건 사고에 선생님들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다. 편지를 받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할 때 그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였고, 반면에 실습이 끝이 난 지금 아쉬움도 크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나아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첨부1) 일기

교육실습 때 적었던 일기 중 일부이다(2주차): 어제 어린이 대공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공원의 휴지를 줍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었다. 1-5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다음 주에 수업을 할 2학년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하철로 이동하여 대공원 후문에서 만나 담임 담당선생님과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하였고 끝날 때는 다시 점검하였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잘 이끄시는 모습을 보며 교실에서도 느꼈지만 베테랑다운 노하우를 볼 수 있었다. 오늘은 낙성대로 과학 견학을 가는 날이다. 광문고등학교 옆 컨벤션 고 앞에서 모이기로 하였는데 오늘은 직접 일지를 쓰긴 어렵지만 중간에 시간이 나면 이곳에 작성할 예정이다.

(다음날)오늘은 낙성대 역 쪽의 과학박물관을 견학하였다. 2학년 학생들과 동기 교생선생님들과 그리고 2학년 반 담당선생님과 함께였다. 버스로 갔는데 각 반에 배정되어 각 반 담당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견학활동을 지켜보았다. 나는 같은 한문담당 교생선생님과 교생 실습 생활 담당 이희수 선생님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중간에 선생님께 일정을 듣고, 박물관에 도착하자 2학년 3반 학생들을 이끌고 학습관에 들어갔다. 1교시는 망원경 만들기 시간이었다.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체크하며 모르는 것을 최대한 지도하려 노력했다. 2교시까지 끝이 나고 점심시간에 식당에 모여 햄버거를 먹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야외에 있는 시설들을 구경하며 친해지려 노력하였다. 3교시는 플라스틱 뱃지 만들기 시간이었다. 추억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였다. 4교시는 야외 시설물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였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신기한 여러 가지 과학 시설물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중간에 한 학생이 생수를 뽑아서 주었는데 하루의 일들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서 고마웠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첨부2) 단체 사진

